

『文谷集』의 서지학적 고찰

A Bibliographical Consideration on *Mungokchip*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초간본과 중간본의 비교 |
| 2. 『文谷集』의 간행 경위 | 3.2 내용상의 특징 |
| 2.1 초간본 | 4. 특징 및 결론 |
| 2.2 중간본 | <참고문헌> |
| 3. 체재 및 내용 | |

< 초 록 >

『文谷集』은 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문인인 金壽恒의 문집이다. 이 문집은 아들인 김창협이 김수항의 시문을 정리하고 산정하여 문집의 발간을 세심하게 준비하였다. 저명한 문인이었던 김창협은 김수항의 유언에 따라 문집의 간행을 준비했는데, 평소 김수항이 지은 시문 중에서 취사 선택하여 문집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창협의 안목으로 정리, 산정된 『文谷集』은 조선조 문집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집은 간행한지 3년 만에 다시 김창협에 의해 중간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수록내용이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집을 중간한 이유가 문집의 편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간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文谷集』에는 다른 사람이 김수항을 위해 지은 문장이 실려 있지 않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발간 과정에서 준비한 시간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서문이나 계문, 행장, 묘비명, 묘지 등을 수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은 오로지 부친의 시문만으로 문집을 편찬하여 간행함으로써 조선조 문집 중에서 특징 있는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文谷集』은 김수항이 일생동안 지은 시문을 소중하게 보관하였고, 김창협이라는 안목 있는 편집인이 있었으므로 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집의 체제와 구성이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집의 발간이 개인과 가문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文谷集』의 의의가 있다.

要語: 문곡집, 김수항, 김창립, 문집, 조선중기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1년 12월 16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Mungokchip is a collection of Kim Su-hang's works; Kim Suhang was a royal liege and writer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Following his will, Kim Chang-hyup, his son and a renowned writer himself, carefully prepared for publishing this book to contain only the selected works from his father's poetry. *Mungokchip* has a typical framework of an anthology in the Joseon Dynasty. *Mungokchip* was published again in 3 years after its first publication, which was very rare. Since there were littl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first edition and the second edi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second edition was published not for any problem of its framework, for a wider circulation.

Mungokchip could contain the works by writers other than Kim Su-hang, with the time and circumstances between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and the second edition. Kim Chang-hyup, however, didn't contain such works as prefaces, funeral orations, biographies, and epitaphs, written by other writers for Kim Su-hang in *Mungokchip*. Since Kim Changhyub prudently compiled only his father's own works preciousely kept for his lifetime, *Mungokchip* could present unique features among anthologies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and its contents and structure were perfectly organized. *Mungokchip* also documents that a publishing of an anthology symbolically shows the accomplishment of a family and an individual.

Key words: *Mungokchip*, Kim Su-hang, Kim Chang-hyup, Anthology,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1. 서 언

文谷 金壽恒(1629~1689)의 본관은 安東으로 祖가 병자호란 때 척화파의 거두였던 淸陰 金尙憲이고 父는 同知中樞府事를 지낸 金光燦이다. 김수항은 昌集, 昌協, 昌翁, 昌業, 昌緝, 昌立 등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¹⁾ 이들은 모두 자질이 뛰어나 세간에서 소위 ‘六昌’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安東金門은 조선 중기의 정치와 학문 및 문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당대 굴지의 가문으로서 그 핵심에 김수항이 있다.

김수항의 형은 金壽增(1624~1701)과 金壽興(1626~1690)이다. 김수증은 정랑과 성천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강원도 화천의 華蔭洞에 은거하면서 성리학에 몰두한 문인이자 학자로 이름이 있으며, 김수흥은 영의정까지 지냈으나 己巳換局 후 賜死되었다.

김수항은 관직에 들어선 이후 1, 2차 禮訟과 庚申大黜陟, 기사환국 등 당시의 격심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결국 기사환국이 일어나자마자 1개월 뒤에 사사되었다. 김수항은 학문적으로는 김상헌, 金長生, 金集 등 기호사림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리학과 주자가례의 원칙을 고수하는 宋時烈과 宋浚吉을 지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南人들과 학문과 정치 현장에서 대립하게 되었다.

김수항의 시대는 예송의 문제와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로 인한 정국의 불안이 겹쳐 정치권이 요동치던 시기였다. 여기에 서인과 남인의 오래된 분쟁은 물론,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던 때였으므로 김수항과 같이 비중 있는 인물이 이와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의 장자 金昌集도 영의정에 올랐으며 조선 후기의 안동김씨 세도가들이 대부분 김수항의 자손이다. 특히 安東六昌은 당시의 학문과 문단을 주도한 학자와 문인으로 이름난 당대의 명사였다. 김수항의 생애와 가계, 후손의 번창 등을

1) 金昌協, 『農巖集 續集』 卷下 <先父君行狀下>에 의하면 김수항은 부인 안정나씨와의 사이에 모두 9남 1녀를 두었다고 한다.

고려할 때 안동김문이 명문벌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수항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김수항의 문집인 『文谷集』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집은 김수항이 사사된 후 10년 만에 간행되었다. 본 문집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문집이 조선조 문집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문집의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고, 3년 뒤에 곧바로 중간본이 간행되었다는 사실 등이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를 통해 『文谷集』의 실상이 규명되고, 나아가 조선조 문집의 발간 과정의 세밀함이 다시 한 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2. 『文谷集』의 간행 경위

2.1 초간본

『文谷集』이 초간된 것은 그의 사후 10년 만인 1699년(숙종 25)이다. 기사환국 이후 김수항과 김수홍이 연이어 사사됨으로써 김문은 크게 위축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문집 발간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5년 뒤에 甲戌獄事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반전되어 다시 서인들이 정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장차 김창집이 江華留守에 부임한 것도 갑술옥사 이후 1698년 11월이다. 김창집은 강화에 부임하자 『文谷集』의 간행을 시도했다. 김창집은 부친의 문집 뿐만 아니라 요절한 막내아우인 金昌立의 유고시집인 『澤齋遺唾』와 김수증의 외손인 洪有人의 『蟄窩遺稿』를 간행하였다. 『澤齋遺唾』는 중간이었고 『蟄窩遺稿』는 초간이었다.²⁾

보통의 문집이 그러하듯 이 문집도 저자인 김수항이 대략 정리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정리한 것이 그대로 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刪定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마련인데 『文谷集』의 교정과 산정을 담당한 것은 김창집과 김

2) 김순희, “택재 김창립의 『택재유타』에 관한연구,”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275-298.

창협이다.

이것은 선부군의 문집이다. 불초 형제가 함께 산정하였는데 시가 무릇 1,030수이고 문은 무릇 477수로 모두 28권이다. … (중략) …

화를 당하던 날에 불초 등이 문집에 관한 일을 여쭙었더니 “나는 본래 재주가 모자라고 독서한 것이 매우 적어 지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찌 기록을 남기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차마 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산정하여 집에 보관하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는 말라” 하시고, 또 “문집은 마땅히 적게 할 것이니 많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 여러 사람의 문집 중에 오직 『石洲集』이 정밀한데 이것은 澤堂(李植의 호)이 산정한 것이다.”라 하셨다. 불초 등이 삼가 말씀을 받고 기억하여 감히 잊지 못했다.

지금 遺集을 편찬하는데 시는 산정한 것이 10분의 6이고, 문은 반이나 된다. 간결히 요약함에 힘써 남기신 가르침을 지키려 하였으나 감식이 밝지 못하여 버리고 취함이 어긋나 불효의 죄를 거듭할까 오히려 두려워 오직 조심했을 따름이다. 편차가 정해 진 뒤에 새길 힘이 없어 근심하던 중에 불초 창집이 강화유수의 명을 받아 어렵게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운각활자를 취하여 약간의 판본을 인출하였다.

불초 창협은 부군의 시종과 큰 일을 삼가 간략히 서술하고 평소에 들은 것과 선배의 논의를 끝내 기록하여 뒷날 군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승정 기원 72년 기묘 12월 갑오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씀.³⁾

이 발문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집의 편찬과 간행 과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 김창협이 문집의 교정과 정리를 담당하고 김창집이 운각활자로 많지 않은 부수를 간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문집을 얼마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김수항이 사약을 받는 날 문집에 대한 일을 상의

3) 金昌協, 『農巖集』 권25, <先集跋>. 이 글은 『文谷集』 말미에 跋文으로 실려 있다. “右先府君文集 不肖兄弟所共刪定 詩凡一千三十首 文凡四百七十七首 總二十八卷 … (中略) … 至禍變日 不肖等試語及文集事 則曰 吾才本凡短 又讀書甚少 所述作曾不滿意 何足存錄 然汝輩如不忍泯棄 則宜自刪定以藏于家 亦不必假之人也 既又曰 凡文集宜少不宜多 我東諸家之籍 唯石洲集爲精 此蓋澤堂所刪定也 不肖等謹受而識之 不敢忘 今於遺集之編 刪削者十之六 文半之 務從簡約 以遵遺旨 然尙懼鑑識不明 去取乖舛 以重不孝之罪 唯此爲兢兢焉爾 編次既定 患無力劖劘 會不肖昌集受命居留江都 粗得拮据 取芸館活字 印出若干本 不肖昌協 謹略述府君始終大致 與平日所聞 先輩緒論一二 識于簡末 後有君子得以考焉 時崇禎紀元之七十二年己卯十二月甲午 泣血謹書.”

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문집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집의 정리와 발간이 문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수항의 경우 평소에 지은 시문을 거의 모두 정리해 놓았으나 그중에서 문집에 실제로 수록되는 것은 절반 정도이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자신의 문집에 대해 매우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김창협은 김수항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는 <先府君行狀>⁴⁾을 지었다. 그리고 김수항이 1689년(숙종 15) 2월 진도에 유배되자 3월에 진도에 내려가 부친을 모시고 있었으며 4월 9일 사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장례까지 맡았다.⁵⁾ 『文谷集』을 살펴보면 김수항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시가 몇 편 실려 있다.

김수항은 사약을 받기에 앞서 <聞後命>과 <定諸孫名書示兒輩> 등의 시를 지었는데 사실상 이 두 시가 絶筆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집에는 이 뒤에 3편의 시가 더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의 2수는 <高山一曲次朱子武夷一曲韻>과 <追次業兒盆梅韻>인데 각 시의 제목 아래 小字雙行으로 다음과 같은 夾註가 있다.

우재(송시열)가 일찍이 고산구곡도를 그리고 동지 여러분에게 <武夷棹歌>의 운을 나누어 주고 짓도록 하였는데 공이 허락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가 이때에서야 비로소 입으로 읊었다.⁶⁾

창업이 일찍이 매화화분을 읊은 시를 짓고 차운하기를 청했는데 이때에서야 입으로 읊었다.⁷⁾

4) 『農巖集』 <續集>, 卷上·下에 나누어 실려 있는 長文이다.

5) 『農巖集』 권35, <年譜> 39歲條.

6) 『文谷集』 권6, 詩.

“尤齋嘗寫高山九曲圖 屬同志諸公分次武夷棹歌韻以紀之 公諾而不就 至是始口占.”

7) 『文谷集』 권6, 詩.

“昌業曾詠盆梅 請次韻 至是口占.”

김수항을 ‘公’이라고 호칭한 것과 ‘口占’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보면 김창협이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으면서 김수항이 입으로 불러 지은 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였다가 문집에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의 정리와 보관에 대해 물은 것도 김창협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文谷集』의 정리와 산정을 맡아 간행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 김창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창협은 중간본을 간행하기에 앞서 초간본을 약간 수정하여 底本을 정리해 놓기도 하였으니 간행의 실질적인 책임을 김창협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2.2 중간본

『文谷集』의 중간이 이루어진 것은 초간본이 유포된 지 3년 뒤인 1702년(숙종 28)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집 간행에 있어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일이다.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 큰 사업이므로 문집 발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쉬지 않은 문제였다. 게다가 중간본이 간행되는 것은 초간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원판의 훼손이나 망실 등으로 인해 중간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시도되는데, 그 기간이 『文谷集』처럼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시 간행되는 것은 보기 힘든 경우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초간본이 운각활자로 적은 량의 부수만 간행되어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 다시 오랫동안 두고 계속해서 인쇄가 가능한 목판본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은 중간본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부친의 문집은 이미 인출되어 약간이 세상에 있었는데 항상 판각이 남아 있지 않아 염려했으나 오래 갈 수 있는 계획이 없었다. 지금 관리 안세징이 영광군수로 나가서 급히 모아 상재하고 안찰사 한성우 공도 듣고 즐거이 그 일을 도와 반년이 되기 전에 끝내게 되었으므로 (문집을) 오래 전하려는 의도가 여기에서 더욱 섭섭함이 없어졌다. 안세징은 이 일에서 처음에 부탁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득 개연히 자신의 일로 생각하더니 그 뜻이 더욱 왕성하여 일처리의 민첩하고 빠름이 이와 같았으니 노력의 부지런함을 알 수 있다.

문집의 시문에는 초간본에 비해 약간의 증감이 있는데 시는 더한 것이 5수이고 뺀 것이 4수여서 도합 1,031수이며, 문은 더한 것이 1수이고 뺀 것은 4수여서

도합 474수이다.

임오년 윤월 무신, 불초고 창협 삼가 씀.⁸⁾

중간본 『文谷集』을 간행한 安世徵(1639~1702)은 宋浚吉의 문인으로 김수항과는 당파적으로 같은 서인 계열이었다. 안세징은 김수항과 정치적 부침을 함께한 인물이었다. 위의 인용에 나오는 韓聖佑(1633~1710)도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으로서 중간본을 작업할 때 마침 전라도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우호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협이 백형인 김창집을 대신하여 지은 안세징의 輓詩가 2수 전한다.⁹⁾ 拾遺에 실린 시의 내용 중에 중간본의 간행과 관련 있는 것이 있다.

五馬將行枉駐鞍	장차 떠나려 말 타고 굽은 안장에 있을 때
片言高諾出心肝	한마디로 허락하며 마음을 드러냈네
遺文庶見從今布	남은 글을 여럿이 보는 것이 지금의 배포에서부터이니
密友猶知託此難	밀접한 친구도 이 부탁이 어려움을 알도다
(하략)	

여기에 나오는 遺文이 『文谷集』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안세징이 김수항의 문집을 중간한 배경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 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두 집안이 世交를 맺고 있어 김창집이 문집의 간행을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세징의 장인이 崔基定인데, 최기정은 김수항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전라도 靈巖이 본거지이다. 영암에 있는 鹿洞書院에는 최기정의 선조인 崔德之와 崔忠成, 그리고 김수항과 김창협이 배향되어 있

8) 『農巖集』 권25, <先集再刊跋>.

“先集 既印出若干本 行於世矣 尙慮板刻不存 無以爲久遠計 今者安侯世徵 出宰靈光亟取以入梓 按使韓公聖佑 樂聞而助其役 未及半年工已告訖 不朽之圖 於是而益無憾矣 安侯於此 初不待屬託 而輒慨然以爲己任 其意既甚盛 而功役之敏速 又如此 尤可見其致力之勤也 集中詩文視前本 略有增刪 詩增者五首 刪者四首 合一千三十一首 文增者一首 刪者四首 合四百七十四首云 壬午閏月戊申 不肖孤昌協 謹書.”

9) 한 수는 『三淵集』 권8, <安靈光世徵挽代伯氏作>이고, 한 수는 같은 제목으로 『三淵集』 拾遺 권6에 실려 있다.

는데, 여기에는 김수항이 2차 예송에서 패하여 영암으로 귀양을 갔던 사실과 최씨 가문의 관계에 의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녹동서원에 「文谷集」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3. 體裁 및 內容

「文谷集」은 전형적인 문집의 체재를 갖고 있다. 卷一 앞부분에 수록된 내용을 글의 종류에 따라 나눈 있는 총목이 있고, 각권마다 앞부분에 권별 목차를 수록하고 있다. 다만 서문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초간본을 간행할 때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미처 서문을 부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문집의 體裁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초간본과 중간본의 비교

「文谷集」의 초간본과 중간본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초간본은 1699년(肅宗 25)에¹⁰⁾ 芸閣印書體字로 28卷13冊으로 간행되었으며 형태는 四周單變, 半郭 29.1 × 18cm,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28.7 × 18.1cm 이다. 그리고 중간본은 1702년(肅宗 28)에¹¹⁾ 다시 木板本으로 간행되었으며 형태는 28卷14冊, 四周雙邊, 半郭 20.0 × 13.0cm,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30.5 × 18.6cm로 활자본인 초간본과 달리 목판본으로 중간되었다.

초간본과 중간본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10) 「文谷集」 跋: 時崇禎紀元之七十二年己卯(1699)...金昌協.

11) 「文谷集」 重刊跋: 壬午(1702)...金昌協.

<표 1> 文谷集 초간본과 중간본 비교

권	내용	초간본(1699)	중간본(1702)	비고
1	詩	191首 - 秋懷寄人 - 再中呼韻	189首	중간본에는 秋懷寄人, 再中呼韻 빠져 있음
2	詩	196首 - 與沂川市南松谷出華 陽亭 觀收馬次市南韻	199首 - 趙洗馬 錫聲挽 - 興教寺次東岳韻 贈 天上人 - 題灣尹李野叟 演 扇留別 - 謹次先祖詩韻錄 呈松都留 相野塘 老爺	
3	詩	193首 - 奇人 - 次韻寄答李甥濡二首	193首 - 次南雲卿追贖韻 却寄 - 次韻寄答李甥濡 一首	제목은 다르나 내용 동일 중간본 誤刻 (一 -> 二)
4	詩	146首	146首	
5	詩	156首 - 李健命妻挽 二首	156首 - 李健命妻挽 一首	'南判書 二星 挽'의 위치가 다름 중간본 誤刻 (一 -> 二)
6	詩	98首	98首	'贈別道源出守鶴城' 위치가 달라짐(중간 본에서 제일 앞으로)
7	和陶詩	50首	50首	
	科體詩	2首	2首	
8	疏筭	24首	24首	
9	疏筭	23首	23首	
10	疏筭	17首 - 吏曹判書三告加由後 乞遞 三疏	17首 - 吏曹判書三告加 由後乞遞 二疏	중간본에 誤刻(三 -> 二)
11	疏筭	23首	23首	
12	疏筭	20首	20首	
13	疏筭	30首	30首	2b의 1-3행 첫 글자가 誤刻
14	疏筭	23首	23首	
15	疏筭	33首	33首	

「文谷集」의 서지학적 고찰

권	내용	초간본(1699)	중간본(1702)	비고
16	啓 府 書啓	8首 附 書啓 1首	8首 附 書啓 1首	내용동일
		- 大司諫時以鄭之問請 罪承 嚴旨避嫌啓 - 賓廳從權啓	- 大司諫時以鄭之 問事避 嫌啓 - 賓廳請從權啓	
17	議	55首	55首	내용동일
		- 練祭無哭議	- 祥後禫前朔望奠 哭臨當 否議	
18	神道碑銘	1首	1首	
	墓碣銘	9首	9首	
19	墓碣銘	17首	17首	
20	墓表	12首	12首	
21	行狀	6首	6首	
22	行狀 附 行蹟	3首 附 行蹟2首	3首 附 行蹟2首	
23	祭文	16首	16首	
24	祭文 附 哀辭	16首 附 哀辭1首	13首	중간본에 3首의 祭文과 哀辭 1首가 빠졌음
		- 亡女大祥前二日祭文 - 亡兒小祥前一日祭文 - 亡兒大祥前二日祭文 - 宋晦錫哀辭		
25	頒教文	5首	5首	
	冊文	3首	3首	
	教名文	1首	1首	
	傳旨	1首	1首	
	表箋	3首	3首	
	上樑文	8首	8首	
26	序	5首	5首	
	記	8首	8首	
	題跋	12首	12首	
	雜著	9首	9首	
27	書牘	24首	24首	
28	書牘	58首	59首	중간본에 '答柳成運' 추가됨
			答柳成運	

3.2 내용상의 특징

3.2.1 目次

卷首에 ‘文谷集總目’이라는 제명이 상란에 붙여 쓰여 있고, 그 다음은 한 자 내려서 각 권별의 편제가 위의 도표에서 보는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각 권의 첫 면에도 목차가 있다. 예를 들면 권1의 경우 ‘文谷集一目錄’이라는 제목이 상란에 붙여 쓰여 있고, 다음에는 ‘詩’라는 내용의 분류가 상란에서 한 자 내려 쓰여 있는데 그 밑에는 소자로 ‘一百十九首’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28권 각 권의 모두에 목차가 있다.

각 권의 소재목은 상란에서 2자 내려 쓰고 詩의 경우 제목이 길어 1행이 넘을 때에는 다음 행은 상란에서 3자 내려 씌으로써 혼동을 피했다. 시가 2수 이상의 연작시이면 제목 밑에 소자로 몇 수인지를 표시했다. 기증시나 만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소자협주로 기록하였다.

3.2.2 詩

『文谷集』의 시는 詩體나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창작의 시대적 순차에 따라 배열하였다. 최초의 작품은 <憶王父西行>인데 제목 밑에 소자로 ‘癸未’라 되어 있으니 김수항이 14세 때 지은 것이다. 김수항은 자신이 지은 시를 정리하면서 보충해야 할 기록을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문집 정리의 치밀성을 보였다. <7월 14일 새벽에 꿈속에서 외삼촌을 따라 함께 배를 타고 강놀이를 하다가 헤어질 적에 한 구를 지었는데 깨고 나서 기록한다(七月十四日曉 夢隨外舅同舟泛江 臨別口號一絕 覺而記之)>¹²⁾라는 칠언절구의 첫 부분이 ‘篷底相迎勝會同 酒杯雖盡意何窮(봉래산에서 서로 만나 좋은 경치 같이 즐기니 술잔은 다하였어도 뜻은 어찌 다하리오)’이라 되어 있는데 시의 말미에 ‘相迎勝會四字 忘而足成者也(相

12) 『文谷集』 권2, 詩.

迎勝會라는 4글자는 잊은 것인데 채워 완성한 것이다’라는 말이 소자쌍행으로 협주가 되어 있으니 이로 볼 때 ‘相迎勝會’라는 구절은 꿈속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서 시를 기록할 때 이 부분을 채워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김수항은 시를 지으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并序를 첨기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상란에서 2자 내려 썼는데, 병서는 아니지만 시를 짓게 된 배경을 보충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상란에서 3자 내려 쓴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고산사를 찾아 스님에게 지어 보임(訪孤山寺 留題示居僧)>이라는 시의 제목 아래에 ‘有入定僧數人棲寺(입정승 몇 사람이 절에 살고 있다)’라는 협주가 붙어 있고, 다음에 병서는 아니지만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옛날 소동파가 항주에 있을 때 선달 납일에 고산사에 유람하고 그 일을 시로 기록했다. 내가 낭주(영암의 옛 이름)에 귀양 와서 월출산 고산사의 경치를 듣고 우연히 흥이 일어나 찾았는데 마침 납일이었다. 이 일은 시대는 다르나 서로 부합되니 또한 기이하다. 이에 절의 벽에 시를 남겨 산문의 좋은 일로 삼는다.¹³⁾

이어 오언율시가 실려 있고 시 아래에 다시 다음의 협주가 있다.

(중국) 고산사의 스님은 혜근과 혜사로서 동파와 방외의 친구였다. 낭주군의 서쪽에 포구가 있는데 이름이 또한 서호이고 절의 뒤에 오르면 보인다.¹⁴⁾

김수항은 유배지인 영암에서 소동파의 고사와 자신의 고산사 방문이 우연히 일치함을 알고 시를 지은 다음 자세한 설명을 부기하였다. 선달 납일이라는 시간과 고산사와 서호라는 지명이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 시를 설명했다. 김수항이 이렇게 자세하게 부연 설명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자들이 김수항의 마음속에 자신

13) 『文谷集』 권3, 詩.

“昔蘇東坡在杭州 臘日游孤山寺 有詩紀其事 余謫朗州 聞月出孤山之勝 偶乘興訪之 是日適嘉平也 事有曠世而相符者 亦異哉 遂留詩寺壁 以備山門一勝事云.”

14) 『文谷集』 권3, 詩.

“孤山僧惠勤惠思 卽東坡方外交也 朗州郡西有浦 亦名西湖 登寺後可見.”

을 소동과와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만약 시만 수록되어 있다면 김수항이 어떠한 배경에서 시를 지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을 참고함으로써 독자는 작가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문집의 정리 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文谷集』 권7에는 <和陶詩>와 <科體詩>가 실려 있다. 和陶詩는 중국 도연명의 시에 화운하여 지은 일련의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며, 과체시는 과거시험에 응시했던 답안을 기록한 것이므로 일반의 시와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분권하였을 것이다. 과체시의 첫 작품은 <오호도에서 전횡을 조문함(嗚呼島甲田橫)>인데 ‘乙酉’라는 협주로 미루어 볼 때 김수항이 16세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자신의 저작을 세심하게 정리하고 있던 김수항의 면모를 알 수 있다.

3.2.3 祭文

『文谷集』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김수항은 3편의 행장과 2편의 행적, 32편의 제문을 남겨 놓았는데, 그중에서 일찍 죽은 아들과 딸을 추모하는 글이 15편이 된다. 김수항은 9남1녀를 두었는데 김수항보다 먼저 죽은 자식으로 昌燮와 昌順, 昌立 그리고 이름을 짓기도 전에 요절한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중에서 창순은 1659년(己亥)에 태어나 6세인 1686년(丙寅)에 돌아갔는데 김수항은 이 아들을 위하여 <祭亡兒昌順文>¹⁵⁾과 <八月十八日夜 病臥書懷 是日即兒子亡日>¹⁶⁾ <八月十八日 追悼亡兒>¹⁷⁾ 등의 시문을 남겼다. 창립은 결혼을 한 뒤에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으므로 김수항의 슬픔은 지극했다. 김수항은 창집의 문집인 『澤齋遺唾』의 서문을 김석주에게 부탁하고 宋時烈, 南龍翼, 金萬重 등에게 발문을 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자신도 <書亡兒詩卷後>, <祭亡兒文>, <祭亡兒墓文>, <亡兒大祥前二日祭文> 등의 글을 지어 슬퍼했다.

15) 『文谷集』 권23, 祭文.

16) 『文谷集』 권2, 詩.

17) 『文谷集』 권3, 詩.

김수항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1665년(乙巳)에 태어나 16세에 죽었다.

죽은 딸아이는 승정 기원 을사년 3월 17일 임술에 태어났다. 모친 나씨가 언달아 아들을 일곱이나 낳은 뒤에야 비로소 딸을 낳았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이한 자질이 있어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순수한 성품과 지극한 행동이 있어 부모가 더욱 애지중지하였다. 14세가 되어 이섭에게 시집갔는데 시댁에 연고가 있어 귀향을 즉시 행하지도 못했다. 1년 뒤 경신년에 임신하여 12월 초2일에 애를 낳다가 병이 위급하여 초4일에 갑자기 돌아갔으니 나이 겨우 16세였다. 5일 뒤에는 낳은 딸도 또한 죽었다. 다음해 2월 12일 시댁의 선조인 완남상공의 묘 아래에 장사지냈다.¹⁸⁾

김수항은 죽은 딸의 일생을 간략히 정리하여 <亡女行蹟>을 지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문장 전체에 배어 있다. 그런데 김수항은 이 딸을 위해 행적만은 지은 것이 아니라 <祭亡女文>, <亡女生日祭文>, <亡女几筵移來後祭文>, <祭亡女墓文>, <亡女大祥前二日祭文>, <亡女遷葬時祭文> 등을 지어 지극한 슬픔을 간곡하게 표현하였다. 다음의 글은 <亡女生日祭文>이다.

유세차 신유년 3월 갑인삭 15일 경오에 아버지는 망녀가 태어난 날 계절의 과일과 몇 가지 제물을 갖추어 영연에 와서 곡하며 말한다.

오호통재라. 네가 죽은 후 세월이 흘렀어도 내 마음의 슬픔은 어찌 풀릴 줄이 있겠느냐. 봄별이 피쳐 북방까지 이르고 마른 풀도 꽃이 피며 벌레들도 구렁이에서 나와 모든 생물이 저절로 즐기지 아니함이 없는데 어찌해서 네 목숨은 한번 끊어져 이어지지 않느냐. 지난 겨울 仲氏(김수항을 말함)가 청나라에 갈 때 송별하는 자리에 너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 너를 보지 못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사람 일의 변화가 눈깜짝할 사이처럼 빠르구나. 만리길이 비록 멀다 해도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데 너 홀로 어찌하여 한 번 가더니 돌아오지 않느냐. … (중략) …

오늘은 해마다 술과 먹을 것을 갖추어 너를 먹이고 너를 축하하여 무릎아래에서 기뻐하며 형제들과 배불리 먹었는데 네가 이미 떠났으니 뒤와 함께 기뻐하리오. 억지로 절기 음식을 마련하고 술상을 준비하니, 때는 가장 좋은 시절이니

18) 『文谷集』 권22, 行狀, <亡女行蹟>.

“亡女生於崇禎紀元之乙巳三月十七日壬戌 母羅氏連舉七男而後始生女 生有異質 爲父母所鍾愛 自幼已有純性至行 父母尤愛重之 十四 歸李氏子涉 以夫家有故 未卽行饋饗 越一年庚申有娠 至十二月初二日 分娩而疾劇 初四日遽沒 得年甫十六 越五日 所生女亦不育 明年二月十二日 葬于李家先兆完南相公墓下 … (下略) …”

예로부터 모춘이라 했도다. 항상 네가 이 좋은 계절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오래도록 살아서 누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찌 차마 지금에 그치느냐. 제사지내는 춘주는 신선하고 달콤하며 떡과 먹을 것은 향기로워 모두 네가 평소에 즐기던 것인데 어찌 한 번이라도 맛보지 않느냐. 아리따운 모양 눈에 있어도 볼 수 없고 낭랑한 목소리 귓가에 있어도 들을 수 없네. 너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혹시 꿈에 보아도 황홀하여 자세하지도 않구나. 이 인생은 끝이 있어도 이 고통은 그치지 않으리라. 한 잔 술로 슬픔을 고하니 눈물도 다하고 목소리도 다하도다.

오호통제라.¹⁹⁾

딸이 죽은 다음 해에 딸의 생일을 맞아 제물을 갖추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지은 제문이다.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 표현이 진솔하여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7편이나 된다는 것이다. 많은 아들 가운데서 하나뿐인 딸이라서 애정이 깊었을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은 제문을 남겨 놓은 것은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김수항이 사사되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이 딸의 남편이었던 李涉에게 보낸 것이라는 사실도 감안한다면, 김수항이 망녀에 대해 깊은 애정과 슬픔이 있었고, 이를 제문의 형식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김수항처럼 정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에게 이처럼 다정다감한 면모가 있음을 아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19) 『文谷集』 권23, 祭文, <亡女生日祭文>.

“維歲次辛酉三月甲寅朔十七日庚午 老父以亡女始生之日 略具時果庶羞之奠 來哭于靈筵而告之曰 嗚呼痛哉 自汝之亡 日月屢易 我心之悲 曷其有釋 陽春布澤 冥凌畢浹 枯卉回榮 孩蟲振蟄 凡 厥群生 靡不自樂 奚汝之命 一絕莫續 追惟去冬 仲氏赴燕 飲饌之席 汝實與焉 孰謂其還 汝不及見 人事之變 忽若轉眄 萬里雖遠 有往必返 汝獨胡爲 一去無歸 念汝几筵 … (中略) … 寔惟此日 每歲酒食 餉汝視汝 怡怡膝下 兄弟共飫 汝既逝矣 誰與爲歡 強具時羞 來設杯盤 四時最好 古稱暮春 常喜汝生 當此良辰 謂永其享 介爾眉壽 胡忍于今 酌汝春酒 鮮膏甘膩 餅餌馨香 皆汝素嗜 胡不一嘗 娟娟在目 視之無形 琅琅在耳 聽之無聲 汝之有靈 焉知在亡 我或有夢 恍惚難詳 此生有終 此痛無闕 一酌告哀 淚盡聲竭 嗚呼痛哉。”

3.2.4 雜著

「文谷集」 권26에는 序, 記, 題跋, 雜著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문장은 각 문체의 형식에 맞추어 쓴 것으로 전형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雜著 9편은 김수항의 독창적인 문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소개해 본다.

<花王傳>은 牡丹을 화왕으로 삼아 인간세상을 의탁한 假傳體이다. 薛聰이 지은 <花王戒>²⁰⁾와 유사한 작품으로, <花王戒>는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을 멀리 하라는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花王傳>은 傳의 기본 형식을 지키면서 화왕의 일생을 서술하였다. 전체의 내용은 화왕의 화려한 일생이 오래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마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김수항이 16세 때 지은 것이다. 위에서 16세에 지은 詩를 소개하였는데 이때부터 그가 文理를 깨우쳐 본격적으로 저작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聽蛙說>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지은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거슬러 없애 버리려고 하였으나, 개구리가 우는 것도 그것들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만 본성을 제대로 거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글이다. 글의 말미에 상란에서 한 자 내려 附記가 있는데, 살펴보면 김수항이 이 글을 쓴 것은 17세였다. 글을 마치고 조부에게 보이자 조부가 글에 대한 느낌을 메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은 34년이 지난 뒤(庚申) 이 원고를 상자에서 발견하고는 조부의 手澤이 남아 있는 이 글을 차마 버릴 수 없어 간직하였고, 이렇게 문집에 수록되었다.

<金洵澗三兄弟字說>은 김순, 김정, 김항 삼형제에게 字를 지어 주면서 지은 것이다. 김순 형제는 金克亨(1605~1663)의 자식들로서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이었다. 여기에서 김수항과의 관계가 짐작된다. 김수항은 이들에게 각각 汝虞, 汝定, 汝習 등의 자를 지어주면서 평생 경계해야 할 사항을 말했다.

<朴思庵畫像贊>은 思庵 朴淳(1523~1589)의 초상에 쓴 贊이다. 그리고 김수항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사돈댁에 보낸 婚書가 2편 실려 있다. 다섯째 아들

20) 「三國史記」 권46, 列傳6, 薛聰 條.

창집과 막내 창립의 혼서로서 제목은 <緝兒婚書>와 <季兒婚書>로 되어 있다. 화상찬과 혼서는 격식을 갖춘 혼서의 경우, 문집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文谷集』에 실려 있음은 원고의 정리와 보관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策問>은 과거시험의 하나로 시무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다. 김수항은 이 문장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반드시 體統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협주는 없지만 김수항이 1652년(효종 2)의 알성문과에 장원 급제한 글로 추정된다.

<協兒赴北幕臨別書贈>은 함경도 지방으로 외직에 나가는 아들 창협을 보내며 지어 준 글이다. 이 글에서 김수항은 자신의 조부 김상헌이 이 지역에서 高山驛丞과 鏡城通判으로 재직하던 일을 들어 조상의 누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김상헌은 1602년에 정인홍의 견제를 받아 함경도로 좌천되었는데 마침 김창협도 비슷한 나이에 같은 행보를 하게 되어 김수항의 감회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遺戒>는 6개의 조목을 된 마지막 훈계이다. 김수항은 4월 9일에 사약을 받았는데²¹⁾ 이것은 이틀 전인 7일에 썼다. 말미에 상란에서 한 자 내려 附記가 있는데 아들은 물론 손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 훈계를 전하도록 부탁하였다.²²⁾ 내용은 자신이 비록 사사되어 죽으나 애국의 마음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릴 것, 상례 및 장례를 검소하게 치를 것, 앞으로도 가문의 상례와 제사는 『喪禮備要』를 따를 것, 무덤에 크고 화려한 비석을 세우지 말 것, 자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학문에 힘쓰되 과거에 반드시 응시할 필요는 없다 등의 5가지 훈계이다. 여기에 小序격의 조목이 하나 더하였으므로 六則이라 협주하였다.

21) 『宋子大全』卷182, 墓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公始謫珍島 其四月九日 承後命以終.”

22) 『文谷集』卷16, 雜著, <遺戒>.

“己巳四月初七日 文谷翁書與子昌集昌協昌翁昌業昌緝 待諸孫成長 亦以此紙傳示.”

3.2.5 書牘

김수항이 남긴 편지는 문집의 끝부분인 27권과 28권에 실려 있는데 모두 82수이다. 권27에는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만을 모아 편집했다. 이 편지들은 <上尤齋>, <上尤齋別紙>, <上尤齋問目> 등의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上尤齋>와 <上尤齋別紙>는 형식과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는 편지글이고, <上尤齋問目>은 송시열에게 묻고 싶은 사실, 주로 예법에 관한 질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한 송시열의 답장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간지로 보아 40세 이후에서 죽기 1년 전까지의 편지만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권28에는 송시열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에게 보낸 편지만을 수록했는데 자신이 보낸 것도 있고 답장한 것도 있다. 가족 외에 보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매제 羅顯道, 사위 李涉을 포함하여 아들들에게 보낸 것이다. 제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김수항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대한 가정적 인물이었다. 넷째 아들 창엽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한다.

창엽에게

너는 금년에 어떤 책을 읽느냐. 들으니 네가 병환이 있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근심이 아니구나. 너는 文理를 아직 깨우치지 못하였는데 나이는 벌써 20이 넘었다. 학업은 한 번 그 때가 지나면 늙어서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으니 이것은 진실로 돌아보면 두려운 것이다. 창집은 문리는 제법 깨우쳤으나 製述의 공은 아직도 부족하니 너와 창집이 너의 집이나 본가의 책방에서 함께 거처하며 함께 공부하면서 일기도 하고 짓기도 하여 너의 형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또한 창집은 처가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마라. 네가 만약 함께 있는다면 피차가 어찌 서로 편하지 않겠느냐. 내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흘려듣지 말라. 이대로 행하여 천리 밖에서 바라는 내 소망에 부응토록 하여라.²³⁾

23) 『文谷集』 권28, 書牘, <寄業兒>.

“汝今年讀何書 聞汝汨於家冗病憂 不能專意學業 勢固然矣 而此非細憂也 汝之文理猶未大達 而年歲駸駸將踰二十矣 學業一過其時 則老大之悔亦將何及 此誠反顧懼然處也 緝兒文理頗進 而製述之功尙闕 汝須與緝兒 同處於汝家或本家册房 與共做學 或讀或製 兼以資益於汝兒 至佳至佳 且緝也不可使長處妻家 汝若與之同處 則彼此豈不兩便也 余之此言非偶然 須勿泛聽 依此爲之 以副余千里外眷眷之望也.”

이 편지는 내용으로 보아 김수항이 영암에 유배되어 있을 때 보낸 것으로 보인다. 병환 중이라 학업에 진념하지 못하는 창업과 처가에 있어 역시 학업을 소홀히 하는 창집에게 동시에 공부에 집중하기를 권하는 뜻을 전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도 자식들의 공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다.

문집에 실려 있는 마지막 문장은 사위 이섭에게 보낸 편지이다. 김수항은 이 편지 이전에 큰 형과 작은 형에게 마지막 편지를 올렸고, 이어 생질들인 李世白과 李濡에게 고별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위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딸은 이미 죽었어도 사위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내용으로 보아 이섭은 이미 몇 차례 장인에게 편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의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망녀의 表石은 이미 내가 청풍에서 구하여 덕연강변에 옮겨 놓았다. 아직 비문을 짓지 못하여 새기지를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자식들과 상의하여 조만간에 세우도록 하기를 바란다.²⁴⁾

이 편지는 4월 6일에 쓴 것이다. 죽음의 직전까지도 죽은 딸의 비석을 세우는 일을 부탁하는 부정이 애처롭다.

3.2.6 기타

『文谷集』에 실린 문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疏箚이다. 권8에서 권15에 이르기까지 8권의 분량을 소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총 193수이다. 25세인 1653년에 처음 正言을 사직하는 <辭正言疏>를 올리고, 마지막은 진도로 유배당하면서 올린 <到郊外陳情疏>이니 김수항의 정치 일생이 소차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차와 함께 국가 경영의 문제나 예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啓와 議도 각각 16권과 17권에 수록되어 있다.

24) 『文谷集』 권28, 書牘, <寄業兒>.

“亡女表石 曾已伐取於清風 輸下德淵江邊 因文字未就 不及鏤刻矣 須與兒輩相議 早晚得便營立 是望是望.”

기타 묘지와 행장을 포함하여 神道碑銘, 上樑文, 序, 記, 題跋 등이 다수 있다. 김수항이 정리한 行狀 중에 <左議政松江鄭公請謚行狀>²⁵⁾이 있는데 이 문장은 『松江集』에는 別集 권5, 附錄에 <謚狀>이라는 제목으로 전재되어 있다.

4. 특징 및 결론

『文谷集』은 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문인인 문곡 金壽恒의 문집이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이 문집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문집은 아들인 김창협이 김수항의 시문을 정리하고 산정하여 문집의 발간을 세심하게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저명한 문인이었던 김창협은 김수항의 유언에 따라 문집의 간행을 준비했는데, 평소 김수항이 지은 시문 중에서 시는 10분의 6, 문장은 절반을 취택하여 문집에 수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시는 1,030수이고 문장은 477편임을 밝혔다. 이것은 조선조 문인들이 문집의 발간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창협의 안목으로 정리, 산정된 『文谷集』은 조선조 문집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집은 간행한지 3년 만에 중간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중간본의 간행을 위해 문집을 다시 정리한 것도 김창협이다. 김창협은 시는 5수를 첨가하고 4수를 삭제하여 도합 1,031수로, 문은 더한 것이 1편이고 뺀 것은 4편이어서 도합 474편으로 중간본을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이 문집을 중간한 이유가 문집의 편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간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집에는 서문이 보이지 않고 김창협이 쓴 跋文만 권말에 실려 있다. 이러한 구성은 김수항이 일찍 죽은 아들 김창협의 문집인 『澤齋遺唾』를 간행할 때 金錫胄에게 서문을 부탁하고 宋時烈, 南龍翼, 金萬重 등에게 발문을 부탁하여 序跋을

25) 『文谷集』 권21.

갖추어 놓은²⁶⁾ 예와 비교하면 많이 다르다. 중간본의 경우에도 서문이 첨가되지 않았는데, 이는 김창협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문을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文谷集』에는 다른 사람이 김수항을 위해 지은 문장이 실려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송시열이 김수항을 위해 지은 <文谷金公墓誌銘并序>조차 수록하지 않았다. 이 묘지명은 김수항이 사사되고 나서 김창협이 송시열에게 부탁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글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 송시열도 사사되었으니 나름대로 수록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집에 실어 놓지 않았다. 이는 김창협의 확고한 편집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발간 과정에서 준비한 시간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서문이나 제문, 행장, 묘비명, 묘지 등을 수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은 오로지 부친의 시문만으로 문집을 편찬하여 간행함으로써 조선조 문집 중에서 특징 있는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김창협이 부친에게 문집의 간행에 대해 물은 것은 김수항이 사사되던 날이었다. 이에 대해 김수항은 구체적으로 문집의 간행에 대해 말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조선조의 문인들이 문집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수항이 자신이 지은 시문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보관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 문집을 정리하고 산정하여 실제로 간행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을 간행하는 이유는 자신과 가문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文谷集』이 간행된 것이 김수항의 가문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세력을 얻기 시작하던 시점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한다.

이처럼 『文谷集』은 김수항이 일생동안 지은 시문을 소중하게 보관하였고, 김창협이라는 안목 있는 편집인이 있었으므로 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집의 편제와 구성이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집의 발간이 개인과 가문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文谷集』의 의의가 있다.

26) 김순희, 앞의 논문, 292-294.

<참고문헌>

金壽恒. 「文谷集」.

金昌協. 「農巖集」.

「三國史記」.

「宋子大全」.

김순희. “택재 김창립의 「택재유타」에 관한연구.”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275-298.

